

## C3 에디터십 설명회

C3 Editorship Briefing Session



C3 에디터십 설명회 현장



C3 이우재 편집장 설명 장면

지난 2020년 7월 10일 오후 4시,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6층에서 학생위원회 정례회의와 함께 'C3 에디터십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대한건축학회 학생위원회와 9기 학생기자단, C3 편집부 5인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학생기자단의 에디터십을 고취하고, 향후 국내 건축 잡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우재 편집장의 C3 소개를 필두로 현유미, 전효진, 이지민, 한가람 총 4명의 편집부 인원들이 C3의 역사와 에디터십, 국내취재, 해외취재, 신입 업무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는 9기 학생기자단의 기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들도 이어졌다.

C3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 전문 잡지로, 1984년 9월 비평전문지 <건축과 환경> 창간을 시작으로 2020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36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현유미 편집부장은 이에 1인 편집장 체제가 한몫했다고 말했다. 이우재 편집장을 중심으로 한 확고한 정체성과 독심 덕분에, 자유로우면서도 제대로 된 매거진이 만들어진 것이다.

본 설명회에서는 C3 매거진, C3 DIZ, C3 Korea에 대한 소개는 물론, 기획에서부터 자료 선별, 취재, 인터뷰, 기사 작성, 레이아웃, 발간에 이르는 전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되었다.

C3 편집부는 DDP 개관식 취재, 파주 가드너스 답사, 해외 취재와 많은 인터뷰 등의 다양한 취재 사례들과 자신이 직접 겪은 퇴고 과정, 학생 신분일 때의 과제와 신입 업무의 차이점 등 생생한 경험을 통해 건축 저널리스트와 에디터들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마음가짐에 관해 이야기했다.

편집부는 “같은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이슈들에 맞춰 특색 있게 바라보는 방법을 진실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과 열정이 지금의 C3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좋은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지민 편집부 과장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기사와 같은 실용 글쓰기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에 멋지게 꾸며진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좋은 글은 독자들이 이해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독자들이 읽기 쉬운 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건축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학생기자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뜻깊은 기회였다. 짧은 글, 정보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글, 비문이 사용되는 글들이 난무하는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글을 추구하며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C3의 조언을 토대로 더 담백하고 진실한 글을 써나갈 학생기자들의 기사를 함께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건축 매거진들이 건축업계 종사자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본다. 이에 흔들리지 않고 건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C3와 모든 건축 매거진, 그리고 건축 저널리스트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학생기자 김현지(연세대) gksmfalvi@naver.com

## 행동하는 도시들

City as Verb



행동하는 도시들 전시 전경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갤러리3)에서는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에 대한 리뷰전인 〈행동하는 도시들〉 전시가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말할 때 어떤 장소나 사물 등 오브제적 성격을 갖는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하는 도시들〉은 도시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의 형태를 6가지 주제의 동사 지속하는(Sustaining), 움직이는(Moving), 재생하는(Regenerating), 혼합하는(Mixing), 참여하는(Participating), 적층하는(Layering)으로 바꾸어보고 17개의 도시를 선별하여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와 더불어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17시에 4차례(파리, 암스트레담, 제네바, 서울)에 걸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biennale](http://www.youtube.com/seoulbiennale))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 공개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는 ‘누가 도시를 만드는가?’, ‘어떻게 도시를 만들고 이해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특히 같은 문제에서도 다양한 도시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적 내용과 전통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을 보며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지, 도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학생기자 이동현(건국대) [specrupe@naver.com](mailto:specrupe@naver.com)

## 서울의 모습: 별의별 도시기록가

The Images of Seoul: People Documenting Cityscapes



온라인 강연 ‘별의별 도시기록가’ 프롤로그의 일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내는 8인의 도시기록가들을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강연 ‘별의별 도시기록가’를 통해 소개한다. 본 강연은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해 격주 수요일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서울시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 업로드되고 있다. 강연에서는 김영준, 심수림, 박지호, 강유가람, 이성민, 조윤희, 채혜선, 황진태 등 여덟 명의 도시기록가의 이야기를 다룬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간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SNS를 통해 서울의 모습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 특정 공간이 지닌 의미와 그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때로는 직접 공간을 기획하는 등 이들은 갖가지의 방식과 요소, 행위들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의 패러다임 속에서 건축 환경과 도시는 너무도 빠르게 변해 왔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저 지나치며 살아왔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볼 필요가 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공간이 내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학생기자 김용현(부산대) [kevin3010310@naver.com](mailto:kevin3010310@naver.com)